

철강산업

6월 초에도 강한 중국 철강가격

Industry Comment | 2018. 6. 12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환경 감독과 국제회의 준비로 철강가격은 6월 초에도 강세 지속. 계절적 비수기와 공급 증가로 가격 상승세 약화 전망

중국 철강 유통가격 6월 첫 주에도 상승세 지속

중국 철강시장에서 열연과 냉연, 후판의 유통가격은 3월말 바닥대비 가장 높은 수준 도달. 6월 8일 열연 유통가격은 4,374위안/톤으로 3월 26일 바닥대비 10.7% 올랐고, 냉연과 후판의 가격도 바닥대비 각각 4.2%, 7.8% 상승. 철근 가격의 최근 고점은 지난 5월 3일 4,390위안/톤이었고, 3월 26일 바닥 대비로는 11.0% 상승

6월은 여름철 비수기를 앞둔 시점으로 철강가격이 계절적인 약세를 보이는 시기이나, 올해는 1)늦게 시작한 봄 성수기 수요와 2)지속되는 중국 정부의 대기질 개선 노력에 힘입어 철강가격 강세가 연장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중국정부, 국제회의 준비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감독 지속

중국정부의 ‘중앙환경보호감찰팀’은 하북성, 하남성, 녕하성, 흑룡강성, 강소성, 강서성, 광둥성, 광서성, 운남성내 대도시에 상주하며 환경보호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할 예정. 지난 5월 31일 이와 관련 뉴스 발표 후 중국 철강업체 주가 상승

한편, 산둥성 청도시에서 6월 9~ 10일 열린 상합봉회(上合峰会: 중국, 러시아, 인도, 몽고 등 8개국 정상회의)로 인해 산둥성내 철강기업을 포함해, 주요 오염물질 배출업체들을 대상으로 5월26일부터 6월말까지 감산 시행. 오염배출이 심각한 업체에 대해서는 회의기간 동안 생산정지 처분

지속적 철강가격 상승에는 한계, 여름철 비수기 고려한 접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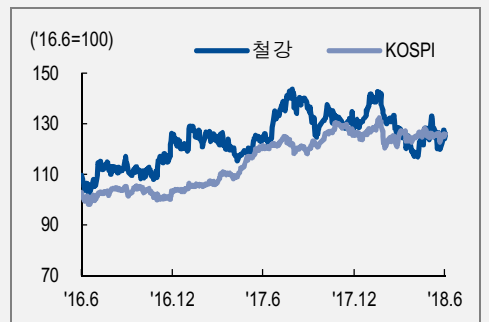
6월 들어서도 중국 철강 유통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지속성은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 이는 수요측면에서 전년대비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1)7~ 8월 계절적인 철강 비수기를 앞두고 있고, 2)중국 철강 생산량 증가, 3)재고 감소세 둔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

CISA(중국강철공업협회)에서 집계한 5월 중순 일평균 조강생산량은 202만 톤으로 5월 상순대비 3.1%, 전년동기대비 10.1%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 6월 7일 기준 중국 철강 유통재고는 1,037만톤으로 13주 연속 감소해 전년동기대비 2.5% 높은 수준으로 하락. 전주대비 감소율은 3.7%로 3월 29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

Neutral (유지)

	PER(배)	PBR(배)
KOSPI	9.9	1.1
Sector	9.3	0.6

Sector Index



업종 시가총액 49,784십억원 (Market 비중 2.6%)
주: KRX업종 분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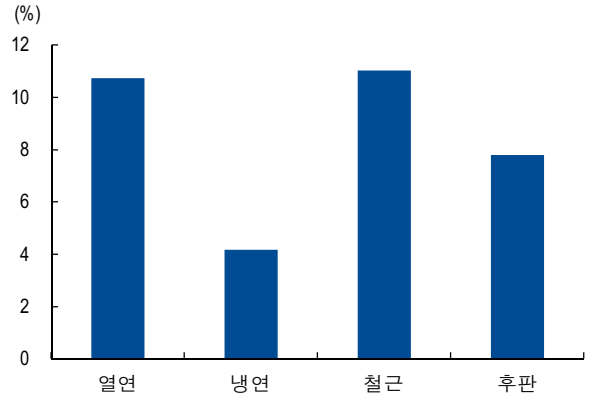
Analyst 변종만
02)768-7597, will.byun@nhq.com

그림1. 중국 철강가격 6월 첫 주 들어서도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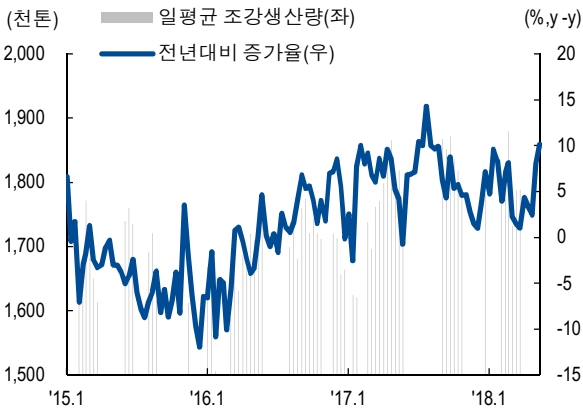
자료: Mysteel,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3월말 바닥대비 중국 열연 유통가격은 11%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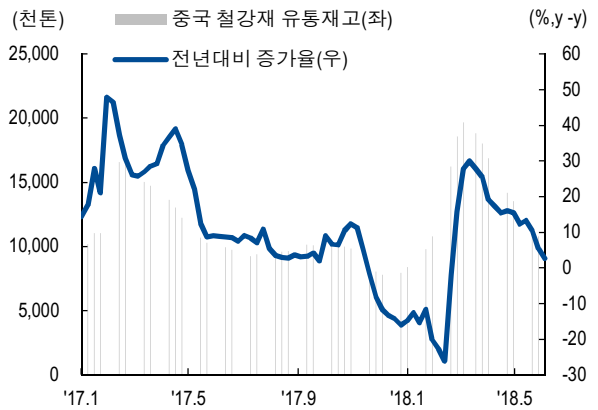
자료: Mysteel,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5월 중순 중국 일평균 조강생산량 사상 최대 기록



자료: Mysteel,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중국 철강 유통재고 감소폭 둔화



자료: Mysteel,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 사항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의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결과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